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2

우수_문세한·남기홍·정희원·김태만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
주요용도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대지면적	2,379,334m ²
건축면적	264,980m ²
연면적	663,192m ²
건폐율	11.1%
용적률	27.6%
규모	지하 IAT 플랫폼, 지상 5층
컨소시엄	해안건축, 단우건축, KPF, ADPI
발주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설계담당	주상선, 정만철, 이동준, 장영동, 김진수, 김지현, 신요한, 이태현, 조광일, 김종서, 김주원, 정원영, 박장범, 이상욱, 김은진, 박영선, 안철영(해안), 김진, 배상준, 딜란 사우어(H Architecture)

한국, 그 역동적인 산하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드는 작업은 한국의 정체성을 담아 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 지형의 70%를 이루는 산지는 구름, 강과重疊되어 한국의 자연을 대표하는 지배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한국의 동적인 지형은 삶의 터전으로 펼쳐져,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건축, 의복, 생활용품 등은 한국의 산을 닮아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산은 관조와 외경의 비밀상적인 대상이 아닌, 한국인의 삶 그 자체이다. 한국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비롯된 한국의 산하. 세계 최고의 공항 이야기도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한국의 산하

세계로 향한 한국의 관문은 한국을 닮은 공항이어야 하며, 한국의 혼과 정신이 담겨질 것이다. 한반도의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오는 아름다운 풍경은 팔도강산 곳곳에 스며들고, 연속적인 다이나믹한 선형들은 종합된 실루엣을 통해 장관을 연출한다. 이렇듯 흥겨운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관조에 머무르지 않고, 절로 청각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코리아 판타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한국적 공항의 완성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한국적 공항의 성공적인 시작이었다. 공항의 국가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제2여객 터미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시적, 통시적 속성의 추출 과정을 통해 함축적인 상징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은 상승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비전에 의해 새로워지고 더 담대해질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의 완성은 곧 한국적 공항의 완성이다.

한국 지형의 변주곡

제2여객터미널은 한국의 산을 닮은 다채로운 형태,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며 발전한 한국의 전통 공간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 관재탕과 혼코스의 외관은 춤을 추듯 공간을 기로지르는 선형으로 표현했고 탑승동의 내부는 활기찬 여객의 흐름을 반영하여 변화무쌍하고 율동감 있는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하였다. 여객의 아름다운 경험은 한국적 정체성으로 충만한 공간에서 시작하여 시스템의 원색함을 통해 고조된다.

한국의 관문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천국제공항은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우아한 예술성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훈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된 제2여객터미널은 여행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형적인 특색을 반영한 터미널 건물의 지붕 선형과 피어의 유려한 곡선은 자연과 함께 호흡해온 한국의 전통 문화를 떠올리며, 고도의 공항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과 진보적인 정신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한국문화센터는 전통 문화와 발전된 현주소를 홍보하는 명소로서 출국레벨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다.

